

R&D 늘리느라... 최대매출에도 웃지 못하는 제약사

유한양행, 매출액 '쑹'·영업익 '뚝'
지난해 1100억 신약개발에 투자
GC녹십자·한미약품도 상황 비슷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등이 반영됐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1조51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국내 제약업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83억원으로 46.8% 감소했다. 올해 유한양행을 영업이익률은

〈국내 제약사 지난해 실적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유한양행	1조5188	501	583	3.3
GC녹십자	1조3348	501	342	3.7
한미약품	1조159	835	341	8.2
종근당	9557	780	425	8.1
동아에스티	5672	392	312	6.9
JW중외제약	5371	264	104	4.9
일동제약	5040	288	130	5.7
보령제약	4604	252	216	5.4
한독	4467	220	85	4.9
동화약품	3066	112	99	3.6

단위: 억원, %

3.3%에 그치며, 전년(6.1%)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00원 어치를 팔아 3원밖에 못남겼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은 R&D 투자의 증가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총 1100억 원을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7.2% 규모다.

회사측은 지난해 기술수출로 인한 계약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실적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은 지난해 11월 안센과 표적항암제 후보 물질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안센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억원 가량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져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올해 R&D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지난해 수입을 올해로 넘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레이저티닙 3상 임상 비용 등으로 R&D 예산을 전년 대비 50% 가량 늘렸다"며 "이를 대비해 지난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일회성 수입을 올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이 올해 초 길리어드와 체결한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수출 계약금 약 170억원도 올해 반영된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비용이 1600~17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기술수출 수입이 R&D 비용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GC녹십자도 2018년 전년 대비 3% 가량 늘어난 1조3348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44%, 39% 가량 줄어들었다. GC녹십자 영업이익률도 전년(7%) 대비 반토막 난 3.7%에 그쳤다. 지난해 GC녹십자의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연결회사인 GC녹십자랩셀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4% 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1조15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만에 1조원 클럽에 진입한 반면 영업이익은 835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제넨텍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지난해 매분기 약 90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입료)을 벌어들였고, 임상 진행에 따라 55억원을 더 받았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총 1929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전체 매출액의 19%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3월부터 '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가능

뇌전증 등 희귀병 환자 자가치료용

3월 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에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를 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가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 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LG U+,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조명·음악부터 수면 상태까지 AI가 관리

IoT AI 스피커·속면 알리미 등 설치
 VIP 병실·수면다원검사실서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스마트병원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LG U+와 협력해 이대목동병원에 '스마트 수면병실'을 설치하고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18일 이대목동병원 7층 VIP 병실과 8층 수면다원검사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장, 하은희 이화융합의료원장, 이향운 수면센터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 등 LG U+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수면병실은 LG U+에서 최근 출시해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I 스피커와 속면등, 속면알리미 등이 설치돼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TV를 끄는 것은 물론 설정에 따라 편안한 음악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켜지기도 한다. 또 실시간으로 실내의 공기청정 상태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오른쪽 세번째),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왼쪽 다섯 번째), 이향운 수면센터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왼쪽 여섯 번째),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왼쪽 네번째)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열린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와 습도를 모니터링해 최상의 실내 환경을 맞추는 등 병원 환경이 낯설고 예민한 환자들에게 호텔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인공지능과 IoT 시대를 맞이해 이대목동병원 VIP 병실과 수면다원검사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을 계기로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이번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에 이어 향후 LG U+와 협력해 보다 발전된 스마트 수면병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번에 이화의료원과 LG U+가 함께 하는 스마트 수면병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병원 환경에 맞게 개발할 것"이라며 "이화의료원이 추구하는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ST,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

혁신신약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창출

동아에스티는 산업과 학계의 개방형 협력 강화를 위해 '제3회 동아ST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는 학계의 창의적인 기초 연구 지원 및 동아에스티의 혁신신약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퇴행성 뇌질환(희귀질환 포함) △동아ST 제품 적응증 확장 및 제

반 연구 2가지다. 국내 대학 및 병원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1, 2차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최종으로 뽑힌 연구과제는 5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동아에스티가 1년간(최대 1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한다. 앞서 진행된 1, 2회 동아에스티 오픈이노베이션에서는 12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중 면역항암 연구 분야 6개, 자사제품 연구 분야 7개를 선정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비타민하우스 프리미엄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 출시

비타민하우스는 프리미엄 차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비타민하우스가 출시한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는 산소함유량 22.8%, 낮은 기온, 1500m 이상의 높은 해발고도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백두산 청정고원의 비옥한 토양과 천지(天地)의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자라 영양이 풍부한 민들레 뿌리만 100% 사용한 제품이다.

'반진공 로스팅' 공법으로 맛과 향을 모두 살려낸 프리미엄 차로, 뿌리 원형을 최대한 살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원물형 타입과 간편하게 티백으로 즐길 수 있는 민들레 뿌리차, 민들레 홍차, 도라지 더덕차 3종 티백 타입으로 출시되어 카페인 들어간 커피 대신 프리미엄 건강차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의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는 비타민하우스 공식 쇼핑몰인 VHmall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